

2017년 1월 소그룹 교재 #1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하나님이 가나안입니다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신명기 2:1-7

찬송가:

324장(통360) 예수 나를 오라 하네

438장(통495)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82장(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는 질문:

살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한 순간 수포로 돌아가 실망했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본문 이해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1절)우선 사해 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인 세일을 향하여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땅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후속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처 럼만 보였을 것입니다.(4절)

약속에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절망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 십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항상 동행해 주셨으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비록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생활을 했던 40년은 한 세대(혹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약속의 땅에서의 필수요소이자 핵심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백성의 마음과 발길이 무거웠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광야 한 가운데에서 가나안을 맛보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직 광야 한 복판에 있었지만 어데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니 은혜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1.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갈게 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는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먹을 것으로는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3.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삶 속으로

1. 내 삶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민을 와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길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2.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한 것을 나눠 봅시다.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하면서 부도의 위기를 넘긴 경험이라든지, 가정의 위기가 잘 마무리된 경험이라든지, 생각지

도 못한 곳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 경험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3. 삶의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으로 마음에 평안을 느꼈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살다보면, 여전히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문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에 더이상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이상하게 주님만으로도 만족하고 평안이 오고, 근심이 떠나갔던 경험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암송구절:

신명기 2:7b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녀와의 나눔

1.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이뤄졌던 경험을 대단하지 않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자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먼저 나눠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2.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017년 1월 소그룹 교재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신명기 3:23-29

찬송가:

425장(통217)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92장(통544)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88장(통539) 이 몸이 소망 무언가

여는 질문:

살면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이해

모세는 광야에서의 불신의 세대의 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해의 북쪽 끝 가까이의 높은 산맥 지역인 비스가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산은 나중에 느보 산(34:1)이었다고 좀더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말씀하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나머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26절) 그 일로는 다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먼 발치에서만 그 땅을 보게 하십니다(27절).

대신 새로운 세대를 위해 여호수아를 새 리더로 세워 그에게 힘을 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28절). 만일 광야 사십 년 동안에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율법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집 혹은 모세가 죽은 후 그의 무덤이라도 우상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라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 내려 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우리의 소원들이 과연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바르며 유익합니다.

말씀 속으로

1.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보게 해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6, 27절)
(그 일에 관해서는 그만 기도하라고 하셨습.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
2.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28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하셨습.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라는 말씀이었음)

삶 속으로

1. 내가 가진 소망들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무조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복을 받고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을 선택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면서, 혹은 결혼이나 자녀계획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아주 작은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리더가 미리 간단히 나눠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내려 놓아야 할 것 같은 나의 뜻(바램)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소망 때문에 진행하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나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두고 작은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신명기 3:26b절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하고 싶고, 갖고싶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2.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017년 1월 소그룹 교재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은 의무입니다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신명기 15:12-18

찬송가:

66장(통20) 다 감사드리세

575장(통302) 주님께 귀한 것 드려

595장(통372) 나 맡은 본분은

여는 질문:

그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도와 주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이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의미와 좀 다릅니다. 곤궁에 빠진 사람은 위급

한 상황에서 살아 남는 방법으로,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팔림'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는 종의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의 끝에(제 7년에) 그 노동력의 대가로 주인은 종에게 다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여 그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노예 제도 허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최소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빚을 지불한 후에는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죄로 신음하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차선책이었습니다. 일정기간 노동력으로 빚을 받아내는 의미로써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있었을 뿐 영원하고 완전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나 '노예'라는 용어만 쓰지 않을 뿐 고용주라는 이름으로 더욱 악독하게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까지 일삼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현대판 종살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또 그 분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해 내가 살고 있음을 믿는다면 받은 그대로 궁핍한 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일곱째 해에 종을 자유롭게 해 줄 때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얼마큼을 그 종에게 주어 보내라고 했습니까?(14절)

(타작마당에 있는 것과 포도주 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후하게 주라고 했습. 하나님이 주인에게 복을 준 대로 종에게도 독립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라고 하심)

2.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곱째 해에 종들을 놓아서 자유롭게 해 주는 사

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나요?(18절)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

삶 속으로

1.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들이고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나누도록 인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교회를 잘 만난것에 대해서, 최근에 승진한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2. 나에게 주신 복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든, 음식이든, 건강이나 다른 재능이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섬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나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암송구절

신명기 15:14b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녀와의 나눔

1.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돈을 주실 때 그것을 어디 어디에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까?

(예를들어, 헌금이나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일,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친구들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들(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7년 1월 소그룹 교재 #4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신명기 19:1-7

찬송가:

70장(통79) 피난처 있으니

419장(통478)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535장(통325) 주 예수 대문 밖에

여는 질문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을 시절 찾아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나눠 봅시다.

본문 이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세개(4:41-43) 그리고 요단 서편(가나안 땅)에 세개가 추가 되어야 하며(2절)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개의 도피성이 더 추가될 수도 있었습니다(9절). 도피성의 목적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가까운 피난처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도피성은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살인죄로 고소된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보복에 노출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인은 기본적인 언약 율법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유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이었습니다(5:17).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숨어 버리면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공정한 재판의 결과 유죄로 인정되면 도피성에서 끌어 내서라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곡된 도피성에 대한 생각처럼 복음과 구원에 대한 왜곡된 생각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교회에 나가 자백만 하고 세례교인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보장 받고 구원의 티켓을 발부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성만큼이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간 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미 죄의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또 다시 죄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U-TURN) 하듯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백을 위해 잠시 멈추었다가(STOP)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2-3절)
(세 성읍을 따로 준비하고 살인자가 그리고 잘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함)
2.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따로 구별하여 마련하되 어떤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라고 했습니까?(4-5절)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음)

삶 속으로

1.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없이 형벌만 면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이 없이,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롤스톱싸인과 유턴싸인을 가지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리던 죄의 길에서 돌이킬 마음 없이 잠깐 동안 죄고백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아 도망한 우리는 본래 죽을 죄인입니다.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죄를 사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마귀의 음성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은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송구절:

신명기 19:3b절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누구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날까봐 자신을 혼내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생각날 수도 있고, 무조건 내 편을 들고 내 말을 믿어 줄 그 눈가가가 먼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묻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시도 인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2.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치면 좋을 것입니다.)